

부모 학대와 또래 애착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최정원* · 조은영**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공격성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부모 학대 및 또래 애착이 공격성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의 위탁을 받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 2기 데이터 중 2차년도(630명)에서 5차년도(346명)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후, 공격성의 변화양상과 공격성의 변화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격성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감소하다가 중학교 1학년 이후로는 그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율에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 학대 및 또래 애착은 같은 시점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방임하거나 학대를 많이 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반면, 또래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유대감을 느낄수록 공격성은 낮아졌다. 또한, 부모 학대와 또래 애착은 공격성의 변화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의 감소폭이 줄어들고, 또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의 감소폭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공격성의 변화양상과 선행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이들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지역아동센터, 부모 학대, 또래 애착, 공격성, 잠재성장모형

*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전공 박사수료, 제1저자

**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전공 박사수료, 교신저자, gazi8332@gmail.co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아동의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공격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언어 및 신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도 학교폭력의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폭행이나 폭언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교육부, 2018; 박근영, 2019. 5).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동기 공격성은 이후 청소년기의 음주나 비행 등의 문제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정영호, 2011; Engels, Vermulst, Dubas, Bot & Gerris, 2005) 장기적으로 개인의 발달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아동기 공격성의 발달에 주목해왔다.

한편,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와 양극화로 인해 취약계층의 성장 및 성공 기회가 제한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의 아동이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불안과 갈등은 반사회적 행동과 부적응의 원인이 된다(Merton, 1938). 실제로 빈곤 가정의 아동들은 비빈곤 가정에 비해 공격성 수준이 높고 비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광혁, 최성만, 2013; 김정은, 서윤주, 2018). 이처럼 경제적 수준이나 가정환경이 열악한 경우 공격성의 발달에 있어 취약할 수 있다.

국내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대표적인 방과후 서비스 중 하나로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2004년 법제화된 지역아동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가정의 아동 등 빈곤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문화, 복지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12월 기준 전국 4,211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약 109,610명의 아동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9).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대부분은 경제적 수준이나 가정 환경적 측면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비록 물리적 혹은 사회적 자원이 결핍된 환경에 놓인 아동들이 필연적으로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아동에 비해 공격성 발달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공격성의 발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격성이란 타인이나 다른 대상을 향한 파괴적이고 처벌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Spielberger, Jacobs, Russell & Crane, 1983). Shaw(2006)는 공격성을 타인이나 물건을 향해 상처를 입히거나 위협할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Berkowitz(1993)는 타인에게 물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공격적 행동은 파괴적인가 혹은 비파괴적인가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도 있는데(Frick et al., 1993) 배도희와 오경자(2010)는 공격성을 파괴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직접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미숙한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반항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반항적 공격성과 직접적 공격성이 상승한다는 선행연구(배도희, 오경자, 2010)를 고려하여, 공격성을 외부로 드러나는 미숙한 분노 표현 및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으로 보고자 한다.

공격성 연구에서 최근 연구자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아동기 공격성의 변화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변화양상을 살펴보는 연구는 한 시점만을 포함한 횡단연구에 비하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아동의 공격성 발달 궤적을 추정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공격성이 점차 감소한다는 결과와 시간에 따라 공격성이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상반된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Bongers, Koot, Van Der Ende & Verhulst, 2004; Cui, Colasante, Malti, Ribeaud & Eisner, 2016; Olson et al., 2013). 비록 국내 다수의 연구들에서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중학교 시기까지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나(고광만, 2012; 최정아, 2014; 한은영, 2014), 연령 증가에 따라 자아 통제력이 발달해 간다는 점(나종민, 2011; 최정아, 2011)에서 공격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행연구들의 상반된 결과는 연구대상의 특성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기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국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공격성의 변화양상이 어떠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공격성 변화양상의 원인에 대한 이해가 동반될 때 보다 효과적인 해결 방안 및 개입 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발달 궤적의 개인차를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발달적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회적 맥락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다양한 사회적 맥락 중 부모는 어떠한 사회적

관계보다 가깝고, 생애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해온 대상이다. 비록 연령 증가에 따라 또래, 학교, 지역사회 등 보다 다양한 사회적 환경이 공격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는 여전히 주요한 사회적 맥락에 해당한다. 그 밖에 아동기에 중요한 사회적 맥락으로는 또래 관계가 있다. 가정을 제외하고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는 학교이며, 이곳에서 형성한 또래 관계는 아동의 인성 및 사회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도 양육 태도 및 행동, 부모 애착 등의 부모 요인과 또래 거부 및 수용, 또래 애착, 또래의 괴롭힘 등의 또래 요인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박주희, 임양미, 2014; 신재은, 2000; 이충권, 양혜린, 2017; 한은영, 2014).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요인과 또래 요인이 공격성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는 아동기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상이다. 비록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함께하는 시간이 감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Lerner, 2009). 특히,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은 아동기의 공격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재철, 최지영, 2011; 김형모, 김영민, 2007; 신혜영, 최해림, 2003; 조유정, 석주영, 박인전, 2005). 자녀는 가정 내에서 자신에게 학대를 행하는 부모의 행동을 내면화하며,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폭력 이외에 다른 대안을 학습할 기회가 부족하기에(Patterson, 2002)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공격적인 형태로 표현하기 쉽다. 또한 아동은 주양육자인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작동모형을 형성하게 되는데(Bowlby, 1982),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게 하고 나아가 충동성이나 공격성 같은 부적응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Bolger, Patterson & Kupersmidt, 1998). 특히, 저소득 가정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자원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제한되어 부적절한 양육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김광혁, 김예성, 2008; Berger,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 학대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에 대한 학대를 개념화하고 구분하는 방식은 다양하게 논의되었는데(Kauffman & Cicchetti, 1989; Martin & Walters, 1982; Sweet & Resick, 1979)

학자들 간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크게 적극적인 형태로서의 학대와 소극적 형태로서의 방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학대란 부모에 의해 가해지는 신체적 손상행위를 의미하고, 방임은 아동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신혜영, 최혜림, 2003). 학대 유형 중 신체적 학대와 방임의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김형모, 김영민, 2007)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래에 대한 애착 또한 공격성을 예측하는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래 애착이란, 친밀한 또래 관계를 통해 또래에 대해 느끼는 강한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며(Armsden & Greenberg, 1987), 또래 관계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정서를 말한다(민하영, 2014). 다시 말해,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이해받으며, 자신의 결정을 믿어주고 문제 상황에서 도움받을 친구가 있다면 또래와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Armsden & Greenberg, 1987). 아동 후기로 접어들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은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부모-자녀관계 이외에 또래와의 관계가 그들의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보다 또래에 대한 신뢰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이운경, 김민주, 윤기봉, 2018), 정신적·신체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또래의 지원을 성인의 도움이나 충고보다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불안정한 또래 관계는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어 공격성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의 발현을 높이고, 또래와의 친밀감, 안정감, 신뢰로운 관계 형성은 공격적인 행동특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영숙, 임안나, 2017; 유혜경, 남현우, 2010; 이은춘, 2016; 조민규, 김춘경, 송현정, 2014).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해볼 때,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또래 관계에서 서로에게 유대감을 느끼고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긍정적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하는 것으로서 공격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또래 애착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성장함에 따라 공격성이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살펴

보고,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지각한 부모의 학대와 또래 애착이 공격성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한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라는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아동기 공격성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공격성의 선행요인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본 연구는 공격성 완화 및 성인기로의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개입 방안 수립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변화궤적은 어떠하며, 이 변화궤적에 유의한 개인차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아동기 부모 학대와 또래 애착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초기치 및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 2기 데이터 중 2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 2기 데이터는 보건복지부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의 위탁을 받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수집한 자료이다. 2015년에 수집된 2차년도 자료는 초등학교 5학년 630명을 대상으로 수집하였고, 이후 조사대상자 수가 점차 줄어들어 2018년도 5차 연구에서는 중학교 2학년이 된 아동 34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1차년도 자료의 경우, 연구대상들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문항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수 있다. 또한 자료 검토 과정에서 1차년도 자료의 신뢰도가 2~5차년도 자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아동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 중 부모 학대와 또래 애착 및 공격성을 사용하였다. 부모 학대는 허묘연(2000)과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구성된 총 8문항으로 방임(4문항)과 학대(4문항)로 이루어져 있다.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으며, 예시문항으로는 '다른 일(직장이나 바깥일)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역코딩)',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83으로 나타났다. 또래 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애착척도(IPPA)를 김지연(1995)과 황미경(2010)이 번안 및 수정한 문항을 활용한 총 9문항으로,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예시문항으로는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79로 나타났다. 공격성은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척도를 수정한 총 6문항으로,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되었다. 예시문항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는 .80~.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애착 중 소외요인을 제외한 부모 학대와 또래 애착 및 공격성 문항을 역산하여 사용하였고, 모든 변인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부모 학대와 또래 애착 및 공격성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각 변인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공격성의 변화 양상을 탐색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4년간 측정된 공격성에 대한 기술통계적 특성을 바탕으로 시간적 변화에 따른 공격성의 발달궤적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 초5-중1 선형변화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한 후,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여 어떤 모형이 더 나은지 평가하였다. 선형변화 모형은 4년에 걸친 공격성의 선

형적 변화를 가정하여 변화율의 측정 회기별 요인계수를 0, 1, 2, 3으로 부여하였다. 초5-중1 선형변화 모형에서는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요인계수를 2로 동일하게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5학년에 측정된 부모 학대와 또래 애착이 공격성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구조모형 분석 시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여 계수를 추정하고, 연구모형이 자료와 잘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χ^2 , NFI, CFI, TLI, RMSEA, AIC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이상의 분석에는 SPSS 22.0과 Amos 18.0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부모 학대와 또래 애착 및 공격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공격성 평균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에 공격성의 평균은 1.94($SD=.64$)로 나타났으며, 이후 중학교 1학년($M=1.88$, $SD=.57$)까지 평균이 점차 감소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M=1.88$, $SD=.56$)에는 중학교 1학년과 비교하여 평균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은 대체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형태를 띄며 중학교 이후에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부모 학대 및 또래 애착과 공격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모 학대	초5 630	1.78	.77	1.147	.751
또래 애착	초5 630	3.04	.50	.050	.003
공격성	초5 630	1.94	.64	.353	-.333
	초6 662	1.91	.61	.267	-.430
	중1 438	1.88	.57	.178	-.458
	중2 346	1.88	.56	.259	-.33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부모 학대와 또래 애착 및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초등학교 5학년의 부모 학대는 모든 시점의 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할수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5학년의 또래 애착은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의 공격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또래와 신뢰로운 관계를 잘 형성할수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수준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표 2

부모 학대 및 또래 애착과 공격성 간의 상관계수

변인	<i>n</i>	1	2	3	4	5	6
1. 부모 학대(초5)	630	1					
2. 또래 애착(초5)	630	-.415***	1				
3. 공격성(초5)	630	.351***	-.284***	1			
4. 공격성(초6)	662	.254***	-.177***	.392***	1		
5. 공격성(중1)	438	.186**	-.094	.243***	.450***	1	
6. 공격성(중2)	346	.245**	-.165	.294***	.398***	.433***	1

** $p < .01$. *** $p < .001$.

2.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공격성의 잠재성장모형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변화궤적을 알아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 초5-중1 선형변화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분석하였다(표 3 참고). 초5-중1 선형변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χ^2 은 10.752($p = .216$), NFI가 .950, TLI가 .983, CFI가 .987, RMSEA는 .017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다른 두 모형과 비교했을 때에도 초5-중1 선형변화 모형이 모든 지표에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초5-중1 선형변화 모형을 아동의 공격성 변화궤적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표 3
공격성 변화의 잠재성장 모형 적합도 비교

모형	χ^2	df	p	NFI	TLI	CFI	RMSEA	AIC
무변화 모형	30.162	11	.001	.861	.916	.907	.039	36.162
선형변화 모형	15.871	8	.044	.927	.962	.952	.029	27.871
초5-중1 선형변화 모형	10.752	8	.216	.950	.983	.987	.017	22.752

최적 모형인 초5-중1 선형변화 모형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공격성 초기치의 예측 평균은 1.944, 변화율의 예측 평균은 -.030으로 이 두 값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변화율이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수준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분산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공격성의 변화궤적에도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의 공분산은 -.048($p < .01$)로 나타나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공격성 점수가 높을수록 성장 기울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보여준다.

표 4
공격성 변화의 잠재성장모형 추정치

구분	평균	분산	공분산
초기치	1.944 ^{***}	.209 ^{***}	초기치 ↔ 변화율 = -.048 ^{**}
변화율	-.030 [*]	.031 ^{**}	

* $p < .05$. ** $p < .01$. *** $p < .001$.

부모 학대와 또래 애착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초기치 및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그림 1에 제시된 것과 같다.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부모 학대는 공격성의 초기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변화율도 .10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가 방임하거나 학대를 많이 할수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초기치는 더 높았으며, 공격성 감소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5학년 시기의

또래 애착은 공격성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5학년 때 또래와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였을수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초기치는 더 낮아졌으며, 공격성 감소 곡선의 기울기는 더 가팔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공격성 변화의 잠재성장 모형 적합도 비교

예측요인(초5)	공격성	초기치	변화율
부모 학대		.435***	-.404 [†]
또래 애착		-.260***	.471 [†]

$\chi^2_{(13)}=19.743$, NFI=.956, TLI=.975, CFI=.984, RMSEA=.021

† $p < .10$. * $p < .05$.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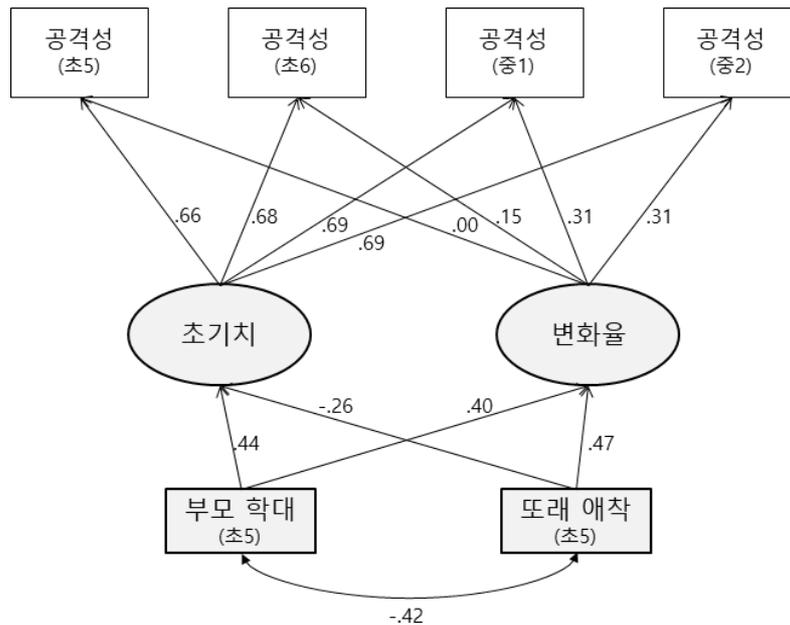


그림 1. 공격성의 변화과정과 예측요인에 대한 구조모형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공격성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부모 학대 및 또래 애착이 공격성의 초기치 및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4개 시점에서 측정한 공격성의 변화궤적을 잠재성장모형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변화궤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감소하다가 중학교 1학년 이후로는 그 수준이 유지되는 형태인 초5-중1 선형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입학까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은 감소하며 그 이후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통제력이 발달하고(나중민, 2011; 최정아, 2011) 타인을 공격하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임을 인지하기 때문에 아동기에는 점차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공격적인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Underwood, Beron & Rosen, 200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공격성이 증가한다는 국내연구 결과(박애리, 2014; 서미정, 2009)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의 불일치는 본 연구대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은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가정환경 등에서 일반 아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고위험군 집단을 대상으로 살펴본 연구(Jester et al., 2005)에서도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공격적인 행동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일반 아동과 달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경우, 초기 공격성 수준이 매우 높아 연령이 증가하면서 공격성의 수준이 증가하기보다 점차 감소하는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일반 아동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으나 추후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의 불일치는 공격성의 정의와 측정의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성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지역아

동센터 패널의 경우 문제행동이나 반사회적 행동으로 규정될 수 있는 직접적 공격성 보다는 간접적이고 미숙한 방식의 반항적 공격성 문항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공격성의 유형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잠재성장모형 검증을 통해 부모 학대 및 또래 애착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초기치 및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 학대 및 또래 애착은 같은 시점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방임하거나 학대를 많이 할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아지는 반면, 또래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정서적 유대감을 느낄수록 공격성은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의 학대 및 방임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박혜은, 박주희, 2017; 이충권, 양혜린, 2017)와 또래 관계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수록 공격성이 낮아진다는 연구(유혜경, 남현우, 2010; 이충권, 양혜린, 201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부모 학대와 또래 애착은 공격성의 변화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 학대 수준이 높은 경우, 중학교 시기까지 공격성의 감소폭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기적으로 공격성은 점차 감소하지만, 부모 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그 감소폭이 작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학대의 장기적 여파를 확인한 것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경우 부모의 학대나 방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학대 및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빈곤 및 방임 아동을 위한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가정폭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예방적 체계 또한 갖추어나가야 할 필요성도 있다.

또래 애착이 공격성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또래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시기까지 공격성의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래 애착이 공격성의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 학대의 변화율에 대한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공격성의 장기적인 변화의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완화를 위해서는 또래 애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증가에 따라 부모-자녀관계보다 또래 애착의 영향력이 증대됨을 시사한 유혜경과 남현우의 연구(2010)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은 가정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자연스럽게 또래와 상호작용 할 기회가 더 많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부모

상당수는 생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가정 외부에서 보내며 아동과 함께 보내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경우 또래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완화를 위해서 또래 애착을 중심으로 개입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동아리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긍정적인 사회적 자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적 흐름에 따른 공격성의 변화양상을 알아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공격성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패널 자료가 지속적으로 잘 축적된다면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생까지의 공격성 변화양상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시기를 거치는 동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공격성 변화양상을 살펴본다면 발달시기별 공격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격성의 변화궤적에는 유의미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표준적인 발달 곡선은 개인의 공격성 변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잠재계층을 살펴봄으로써 공격성 발달의 유형을 파악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격성의 변화양상을 알아보았고 나아가 이 시기 가장 주요한 관계인 부모와 또래가 공격성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격성 발달과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으로서 부모 학대와 또래 애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라는 방과후시간 특별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공격성의 변화양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향후 이들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고광만 (2012). 또래 괴롭힘을 경험한 아동들의 공격성 발달 궤적 연구. **생애학회지**, 2(2), 67-80.
- 교육부 (2018).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김광혁, 김예성 (2008). 가족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부모의 우울 및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47-859.
- 김광혁, 최성만 (2013). 빈곤/비빈곤 아동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단계별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28(2), 145-161.
- 김세원 (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철, 최지영 (2011). 부모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0(1), 19-32.
- 김정은, 서윤주 (2018). 빈곤가정 아동의 정신건강과 사회공동체의식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비빈곤가정과 비교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10(2), 61-78.
- 김지연 (1995). **청소년기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형모, 김영민 (2007). 부부폭력 목격과 아동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1(1), 31-60.
- 나종민 (2011). 범죄행위를 설명하는 주요변수로서의 자아통제와 비공식적 사회통제간의 종단적 상호작용 분석. **형사정책연구**, 87, 359-389.
- 민하영 (2014). 학령기 아동의 자아통제와 충동성이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 아동심리치료학회지**, 9(2), 83-97.
- 박근영 (2019. 5). **교권침해 현황과 특성**. 교육정책포럼.
- 박애리 (2014). 부모간의 폭력노출 및 학대받은 경험이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0), 503-528.
- 박영숙, 임안나 (2017). 공격성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을 매개효과로. **교정복지연구**, 50, 57-86.
- 박주희, 임양미 (2014).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교사에 대한 친밀감과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1(3), 87-110.
- 박혜은, 박주희 (2017).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초등학교 고학년 남녀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의도적 통제의 조절효과. **아동학회지**, 38(5), 5-17. doi:10.5723/kjcs.2017.38.5.5
- 배도희, 오경자 (2010). 한국판 CBCL 공격행동척도의 하위 2 요인 모형탐색.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3), 371-390. doi:10.16983/kjsp.2010.7.3.371
- 보건복지부. (2019). **2018년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034-10). 세종: 보건복지부.
- 서미정 (2009).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 변화와 비행, 우울/불안 및 학업성취감: 잠재성장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0(2), 141-167.
- 신재은 (2000). 초기 청소년의 우정관계와 또래공격성 및 또래에 의한 괴롭힘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53-166.
- 신혜영, 최해림 (2003).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공격성 및 대인불안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95-307.
- 유혜경, 남현우 (2010). 초등학교 고학년의 부·모 애착, 또래애착, 성역할정체감과 공격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6), 215-238.
- 이운경, 김민주, 윤기봉 (2018). 부모, 또래, 지역아동센터 교사와의 관계가 지역아동센터 이용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3(4), 633-652. doi:10.13049/kfwa.2018.23.4.5
- 이은춘 (2016). 중학생의 자아정체성과 또래애착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영연구논문**, 8, 89-103.
- 이충권, 양혜린 (2017). 가정에서의 학대·방임 피해경험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9(1), 29-55. doi:10.19034/KAYW.2017.19.1.02
- 정영호 (2011).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이용과 공격성 그리고 실제 비행에 관한 연구: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8(1), 89-125.
- 조민규, 김춘경, 송현정 (2014). 중학생이 지각한 학대경험과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와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6(2), 54-79.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조유정, 석주영, 박인진 (2005).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자기통제성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1), 133-163.
- 최정아 (2011). 청소년의 지각된 부모지지, 자아통제력, 학교적응의 종단적 관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분석. **사회과학연구**, 27(3), 89-212.
- 최정아 (2014). 초기 청소년기 공격성의 발달적 변화와 가족 영향 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2), 294-307. doi:10.5392/JKCA.2014.14.02.294
- 한은영 (2014). 초기 청소년의 공격성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8, 209-234.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황미경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및 사회불안과의 관계 연구**.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erger, L. M. (2004). Income, family structure, and child maltreatment risk.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8(8), 725-748. doi:10.1016/j.childyouth.2004.02.01
-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McGraw-Hill Book Company.
- Bolger, K. E., Patterson, C. J., & Kupersmidt, J. B. (1998). Peer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among children who have been maltreated. *Child Development*, 69(4), 1171-1197. doi:10.2307/1132368
- Bongers, I. L., Koot, H. M.,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4).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xternalizing behavio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5(5), 1523-1537.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doi:10.1111/j.1939-0025.1982.tb01456.x
- Cui, L., Colasante, T., Malti, T., Ribeaud, D., & Eisner, M. P. (2016). Dual trajectories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from mid-childhood to early adolescence: Relations to sensation seeking, risk taking, and moral reasoning.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4), 663-675. doi:10.1007/s10802-015-0079-7
- Engels, R. C., Vermulst, A. A., Dubas, J. S., Bot, S. M., & Gerris, J. (2005). Long-term effects of family functioning and child characteristics on problem drinking in young adulthood. *European Addiction Research*, 11(1), 32-37. doi:10.1159/000081414
- Frick, P. J., Lahey, B. B., Loeber, R., Tannenbaum, L., Van Horn, Y., Christ, M. A. G., Hart, E. A., & Hanson, K. (1993).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and conduct disorder: A meta-analytic review of factor analyses and cross-validation in a clinic sample. *Clinical Psychology Review*, 13(4), 319-340. doi:10.1016/0272-7358(93)90016-F
- Jester, J. M., Nigg, J. T., Adams, K., Fitzgerald, H. E., Puttler, L. I., Wong, M. M., & Zucker, R. A. (2005). Inattention/hyperactivity and aggression from early childhood to adolescence: Heterogeneity of trajectories and differential influence of family environment characteristic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1), 99-125. doi:10.1017/S0954579405050066
- Kaufman, J., & Cicchetti, D. (1989). Effects of maltreatment on school-age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ssessments in a day-camp set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5(4), 516-524. doi:10.1037/0012-1649.25.4.516
- Lerner, R. M. (2009). The Positive youth development perspective: Theoretical and empirical bases of strengths-based approach to adolescent development.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oi:10.1093/oxfordhb/9780195187243.013.001

- Martin, M. J., & Walters, J. (1982). Familial correlates of selected typ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2), 267-276. doi:10.2307/351537
- Merton, R. K. (1938). Social structure and anomi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 672-682.
- Olson, S. L., Sameroff, A. J., Lansford, J. E., Sexton, H., Davis-Kean, P., Bates, J. E., Pettit, G. S., & Dodge, K. A. (2013). Deconstructing the externalizing spectrum: Growth patterns of overt aggression, covert aggression, oppositional behavior, impulsivity/in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between school entry and early adolesc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5*(3), 817-842. doi:10.1017/S0954579413000199
- Patterson, G. R. (2002). The early development of coercive family process. In J. B. Reid, G. R. Patterson, & J. Snyder (Eds.), *Antisocial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developmental analysis and model for intervention* (pp. 25-44). Washington, DC, U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haw, D. S. (2006).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early childhood. In H. E. Fitzgerald, B. M. Lester, & B. Zuckerman (Eds.), *The Crisis in Youth Mental Health: Critical Issues and Effective Programs, Vol. 1: Childhood disorders* (pp. 183-203). Westport, CT: Greenwood.
- Spielberger, C. D., Jacobs, G.,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scale. *Advances in Personality Assessment*, *2*, 159-187.
- Sweet, J. J., & Resick, P. A. (1979). The maltreatment of children: A review of theories and research. *Journal of Social Issues*, *35*(2), 40-59. doi:10.1111/j.1540-4560.1979.tb00800.x
- Underwood, M. K., Beron, K. J., & Rosen, L. H. (2009). Continuity and change in social and physical aggression from middle childhood through early adolescence.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5*(5), 357-375. doi:10.1002/ab.20313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 and peer attachment on aggression amongst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s : An application of latent growth modelling

Choi, Jungwon* · Jo, Eu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rajectories of the aggression of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s and to identify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 and peer attachment on the aggression of children from a longitudinal perspective. The 2nd panel data from the 2nd year($n=630$) to 5th year($n=346$) of the community child center children panel survey was used. We conducted 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utilized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levels of aggression decreased from the 5th to the 7th grade. Second, parental abuse and peer attachment predicted children's initial level of aggression (intercepts) and their rate of increase of aggression (slope). This study confirmed the longitudinal impact of parental abuse and peer attachment on the aggression levels of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s.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task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community child center, parental abuse, peer attachment, aggression, latent growth model

투고일: 2019. 12. 3, 심사일: 2019. 12. 20, 심사완료일: 2020. 1. 24

* Dep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